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립보 1:21)

발행처: 대림예배주교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5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국장: 조순진



5·27 교회 주변 집중 전도

모두 모였다.
전도에 모든 것을 건 성도들도 모였고 전도를 해
보진 해봤지만 자신이 없는 성도들도 모였고, 난생 처음
전도해 보는 성도들도 모였다. 불가피하게 오지 못한 성
도들은 기도로 동참하였다.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로 나
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고,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었다. 우리 아이들이 어
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기쁨이었고, 간간히
받은 베행답고 따가운 눈송도 복음을 위한 기쁨이 되었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구간에 뒤섞여 하나되는 은총
이 임했다. '하나님과 복음 전도는 항상 함께 움직인
다. 5·27 전도는 온 교회가 하나되어 복음을 증거하
는 불결을 위한 필한 불새가 되었다. (6면에 계속)

제2차 전국목회자세미나

지난 2월 있었던 제1차 전국목회자세미나에 이어 제
2차 세미나가 8월 23일부터 25일에 걸쳐 진행됐다. 2차
세미나의 주제는 '성도의 회복: 성경해석과 복음적 설
교'로서 강의를 미국 리플트신학원의 리처드 크레이프와
웨스트민스터신학원의 리처드 크레이프가 담당한다.
교육훈련원의 성장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금번 행사에
전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여 한국 교회가 복음으
로 새로이 기경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이는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한편 금번 제2차 세미나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회비

는 3만원이며 대상은 목회자이다.

※강사



리처드 크레이프(Dr. Richard Craven)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설립자인 교수)
성경적인 목회자이며 동시에 WTS에서 풍부한 현장적인
경험과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천신학 교수.



리처드 프래트(Dr. Richard Pratt)
(리플트신학원 구약학 교수)
(웨스트민스터신학원(IM.D.) 하우)
영대기 강의의 전문으로 세계 각지를 다니며 영적 강화력이
깊은 강의를 주도하고 있는 RTS 구약학 과장.

찬양대원 양성부 종강 주간성경공부 등 6월 중 마쳐

성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찬양대원양성부 공부가
오는 종강된다. 찬양대원의 자격, 발생법 등 원리와 실
제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3개월간의 훈련을 모
두 마친 수강생은 총 38명이다. 한편, 크로스데이 및 성
경과 간 공부반 등 총 17개 반으로 편성 운영된 주간성
경공부반은 6월 중순을 전후로 하여 강사가 종료될 예
정이며, 80명이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교사양성부는
6월 27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99년도 전반기 성경연구
원 각반에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성도들은 총 584명
이다. 이제 모든 수료생들은 배운 바 말씀과 실재들을
개인의 삶과 봉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 '왕 같
은 제사장'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50대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장년2부 오늘 총동원 주일
12시 30분 교육관 314호

현대의 약점 중 하나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임이다. 초경된 기개와 우주의
을 만들지만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21세기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탁하하신 진리의 말씀을 옮겨 본받으며 더욱 말씀으
로 무장하고 항상 기도하는 균형잡힌 신앙생활이 더
욱 절실하다. 장년2부는 이런 현상을 직시하면서
매주일 낮 12시 30분 교육관 314호에서 모여 윤영택
목사님(원동교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
을 모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깊이있게 공부하며 있
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50대 성도님
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 장년2부 부장 강 모용 통 -

제3차 학습세례 교육 문답

6월 13일과 20일에
대상자들은 미리 준비, 신청해야

99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이 6월 27일에 거행되며, 이
를 위한 교육이 6월 13일과 20일에 아래와 같이 진행되
다. 금번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 개종 대상자들은
아래의 교육 일정에 따라 미리 신청하여 교육받을 수 있
도록 준비해야겠다.

날짜	시간	학습과	장소	세례, 개종,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6월 13일 (주일)	12시 15:00-15:50	기독교교도 (입교자 학습)	교육관 314호	세례관 (입교자 학습)	교육관 307호		
	22시 16:00-16:50	장로교도 (장로회 학습)	교육관 314호	교당 (장로회 학습)	교육관 307호		
6월 20일 (주일)	12시 15:00-15:50	구원론 (이웃을 학습)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웃을 학습)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입교자 학습)	교육관 314호
	22시 16:00-16:50	온전 (온전 학습)	교육관 307호	온전 (온전 학습)	교육관 307호		
6월 27일 (주일)	전날매일	성인 학습, 세례	(제1회 성도세례, 성도)	유아 세례	(5주 3차, 입교자)		

'99 여름 단기선교지원자 면접

6월 5일(토) 2시 30분
오늘까지 서류제출

99년도 여름 단기선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면접이 6월 5일(토) 오후 2시 30분에 실시된다(몽골-
선교관2층 회의실, 케냐-선교관 301호, 파키스탄- 교육
관 109호). 지원자는 고등부 15명, 대학부 25명, 청년1
부 19명 등 총 89명이다. 금번 단기선교는 총 4-50명이며
6월 수단팀, 7월 몽골팀, 그리고 8월 케냐와 파키스탄
팀 등의 순으로 출국하게 된다. 지원자 전원은 시간에
늦지 않도록 면접에 참석해야 한다. 성도들은 모든 선
발결과와 훈련 및 파송과정에 성령에게 맡겨 함께 하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능력이 확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짧은이들 중 선교전신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협력해야 하겠다.

이·연·한·교·집·시·다 주일 성수

'마음이 중요하지 태도가 좀 어때?
말은 맞지 않지만 사실은 틀렸구나. 물론, 예
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심
으로 예배의 시간과 장소보다는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대로 일리
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일정한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
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의 선악에 그 몫으로 행한 것
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태도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의식에 빠지지만, 진정한
신령을 강조할 때 그에 걸맞는 태도는 당연히 나타
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전
심령의 기쁨입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바른 관
계 속에서 전심으로 지켜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일과
몸의 유희를 쫓는 일에 몰두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
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다음 일주일을 배다보면서 안식을 누리고, 이러한 교
우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일들이므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요
즘, 교회주변 가게들과 식당들이 매주일 성령을 누리
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전반기 교구 영성훈련 5월 25일로 마쳐

1999년도 전반기 교구영성훈련이 지난 3월 23일에
시작하여 지난 5월 25일로 일단락되었다. 교구별로 평
균 160여명이 참석하여 연인원 3천여 성도들이 동참한
금번 영성훈련은 말씀과 공동체 훈련, 산상기도회와
찬송가 부르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진행되었
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은 개인의 영성수련뿐
 아니라 교구별로 하나되는 은혜를 나누었다. 후반기 교
구 영성훈련은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교회당 주변 대청소 6월 2일 수요일 부에배 후

- 청소계획: 교구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합니다.
- 청소도구, 쓰레기 봉투, 야끼끼 등은 동문 경리실 앞
에서 분배합니다. (이때 숫자는 교구별)





김창임 목사

선민의 불신과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 42:18-25)

“나의 몸이 건강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지위가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교만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행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1. 선민 이스라엘의 불신

“너희 귀머거리들이 들으라 너희 소경들이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가 아니나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시지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종같이 소경이겠느냐”(18-19)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로부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머무는 동안에 요셉의 통치 기간에는 대접을 받았지만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의 힘으로는 애굽을 이길 수도 없고 바로 왕의 잔인한 쇠사슬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10) 인강직으로 생각하면 히도 소망도 없는 80세의 모세와 83세의 아론이 칼 하나도 가지지 않고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세례를 호령하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를 썬 뒤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희생 제사를 드리고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광야에 기도할 곳이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왕은 코웃음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더욱 억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 개국을 애굽을 치셨습니다. 바로 왕의 딸들로부터 집안의 첫새끼들까지 하룻밤에 소라치 죽었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무릎을 꿇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벌받았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아론은 늘어난 데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애굽을 내보냈으며 홍해를 건너 때에는 육지와 같이 진보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서운 심판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타나 시계명을 주시며 모세와 대화할 때에 보성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를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마음이 넘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경외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의사가 없

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불지라도 유익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함도 다”(20절)

이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마음으로는 마귀와 타워하고 생활로는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는 반역자가 되어 밤낮 죄악의 길을 달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죄를 범하는 것은 재미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고생스럽기 때문입니다. 화두는 밤을 밝히면서 칠 수 있으나 성령을 보라고 하면 두 장을 넘기지 못하고 졸니다. 죄를 범하려면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아까워 질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귀머거리요 소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간직하시어 이스라엘이 잘나서 귀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밝히는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만민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받았으나 그것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 귀한 줄 몰랐습니다. 보배를 보배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범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탄식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마 11:7) 이스라엘 민족은 목적이 바람 부는 대로 기분 나쁜 대로 시국이 굴러가는 대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지’ 생각하지 않고 기분나는 대로 팔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둘째로 동고동락하지 않는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기르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복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 한과 같도다”(마 11:17) 사자가 죽으면 죽으라면서 다른 사람의 사냥을 떠돌만무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셋째로 배은망덕하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대

에 감동하시”(마 11:20)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보고 예수님의 교훈을 제일 많이 들은 고라진, 벳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였습니다.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 권수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슴에 못질을 하더라 말입니다. 죄를 범하다가 망한 것을 보고도 죄에서 떠날 마음을 갖지 않고 더욱 달려 들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너희에게 행할 이적을 몇몇 소중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이 회개하여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교훈을 가장 많이 받은 고을이 망한 것을 가장 많이 하니 이럴 수가 없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넷째로 신령한 눈이 아무도 없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대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천지의 주재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리인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노이다”(마 11:25)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고 하면서 신령한 눈이 어두워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 가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안타까운 인간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탄식이나 마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탄식이 오늘 제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이 될까와 같이 합니다. 남에게 탄식할 뜻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신이 멸망할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제와 여러분은 이런 탄식하기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형벌도 큼니다. 하나님은 보편을 입삼으며 소경, 귀머거리 노릇을 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2. 하나님의 심판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고 구할 자도 없고 탈취를 당하고도 노를 주라 할 자도 없다”(22절)

도적을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도적에게 얻은 것들을 모두 빼앗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자유와 명예와 생명을 모두 빼앗겼다고 하십니다. 두 가지 모두 도적을 맞게 하시는데 흉인과 전쟁입니다. 흉인을 보냈는데 계속하여 버려져서 그 다음에는 전쟁을 보내십니다. 그대도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멸할진 진노와 전성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하니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버려두지 아니함도다”(25절)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원수가

국경을 넘어서 사방으로 쳐들어와 백성이 피를 흘리며 죽어 가는데 예루살렘의 돈값과 세력 좋은 사람들은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너희의 몸이 타는데도 편안하고가 하나냐? 사방에서 원수가 들어와서 백성은 전쟁의 소모품이 되는데 너희는 중앙에서 못된 짓만 계속하고 있느냐? 너희에게도 임하리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입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나이드는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에 나가서 메대 바사군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궁궐 안에서 밤이 맞도록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을 때에야 그릇, 금 그릇들을 부어 만든 것만 있었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에 나가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은 후방에서 적극적인 지원 작전을 펴지는 못할망정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방탕한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손가락을 보내어 맞은편 벽에 ‘메네 메네 메셀 우파르스인’이라는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 뜻은 “너를 저울에 달아 보라가 알아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그 날 밤으로 벨사살 왕은 메대 바사군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손발이 붙어 붙을 때에 아직 가슴까지 붙어 있지 않았다고 못된 것을 하면 안됩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이처럼 망하게 됩니다.

3. 결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몸이 건강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지위가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탄식할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흉년으로 도적맞고 전쟁으로 도적맞아 자유도 명예도 재산도 생명도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라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행 일에 쓰지 않고 사치하고 방탕한 일에 허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 걸을 남겨 주셨으니 먼저 믿은 제와 여러분이 주인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남은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좋은 일에만 사용합시다. 그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복을 받아 후손에게까지 물려 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관 목사

놀라운 일 (마태복음 21:12-17)

“...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니라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

성전을 찾으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물러엿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물었습니 다. “이는 누구뇨?” 예루살렘성까지 따라온 군중들은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는 인물로, ‘선지자 예수’로 알려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들이 놀라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 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너무나 기괴한 모습들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제하시는데 특별한 장소로 솔로몬이 건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과 의, 그리고 성결함이 있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장소가 더럽혀지고 있는 현장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살피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진정한 예배와 온전한 충성이 드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기에 모인 교역자들과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출현의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영혼으로 예배와 헌신을 드리는지를 보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믿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진정한 예배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가 순결한 뿐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가득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심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바둑판 같은 자들의 의자를 물러엿으셨습니 다(12절). 그들 모두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마음은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지는 성전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가 시작되자 전, 먼저 예배를 위한 진정한 심령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계속되어온 매매와 세속적 교류들을 금하셨습니다. 성전이 시작이 아니라라는 것을 행동으로 시회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절한 재물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소와 양, 비둘기와 상인들을 성전에게 끌어들였고, 이러한 매매행위는 습관과 전통이 되어 성전을 시장처럼 만

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사람들을 쫓아내고 상들을 물러엿으셨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동안 별다른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서 진리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에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니라’(13절)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욕을 위해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마음은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지는 성전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 먼저 예배를 위한 진정한 심령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집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조화와 평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돈에 대한 탐욕이 끼여들 자라는 습습니 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이방인들과 뒤섞인 장사를 벌인 여자는 전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집으로 거룩과 의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에 세속적인 가치들이 끼여들 자라는 습습니 다. 우리가 기 진리를 무시하거나 바꾸어 놓는다면 우리의 심령은 강도의 굴혈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상 각자들을 추구하는 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도의 굴혈과 같은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집

예수께서는 성전에 있는 환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14절).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신체

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배를 통해 신체적, 영적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만드시기와 하는 열심이 중단했습니 다(요 2:17).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셨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심령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지고 경작되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요소들을 몰아내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교만으로 완고해진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

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비천한 나라 몇 사람이 만인 앞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를 기이히 여겼습니 다. 그들은 어린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외침을 들었으나 오히려 그 소리에 분개했습니 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라고 반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시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 이런 아기와 꽃잎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잊어본 일이 없느냐”(16절).

그들에게 배워야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의 것들과는 달랐습니 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일으켰습니 다.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어린이들의 외침을 듣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도 이들에게서 배워야만 했습니 다. 예수님은 그들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바꾸시기를 열망하시면서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출현교회에 함께하실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제는 우리 안과 특별하고도 독특한 교세를 일으킵니다. 기도와 찬양, 성경적인 말씀선교로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자리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다한 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십시오. 찬양과 예배는 죄로 인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깨끗하고도 거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그의 놀라운 일들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에서 속된 것들을 제하시고 가장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

어린이들의 외침

당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세계 선교

외국인 전도체육대회를 마치고

신실하신 하나님

김 성 자(국내외국인선교부 인도팀)

국내외국인선교부는 22일 충현기도원에서 전도체육대회행사 및 집회를 가졌다.

대부분이 “왜는 사람들이 일하는데도, 기가שת진 것보
다 많이 참작하여 교사와 학생같이 더 친숙해질 수 있
는 시간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특별히 전년의 선교연구
원 1명 수송한 언어 습득 훈련에 참가하고 다음날 일
점 기도회를 통해 언어 습득하는데 있었다. 기도회에 도
착 후 먼저 예배를 드린 후 정심사역을 하고 제복을 개
를 했다. 각국의 외국인들이 미리 아울러 팀을 나눠 개
침을 할 때는 국적을 떠나 사귀어 되게 되나서는 모
순이었다. 그러나 밤말을 하고 아침에 회개하는 감도
안하고 잠적했다. 아침에도 일하기 위해 중간에 잠도
만 하는 모습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듯 가슴을 평하
게 했다.

외선부하 권리와 기술담당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영적인 양식을 위한 저녁 부흥회가 있었다. 나 같은 외선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으로 마음을 정화한 후, 주님에 대해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언어로 통역하는 가운데 '오래 예수님만이 구원해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교인 이 행할 것을 영혼이 변화되어 모두가 자국의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파키스탄팀과 코류카기 반주조 그리고 언어로 특별한 장점을 띠고 있는데도 감격스만으로 듣고, 언어는 달라도 함께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이 날 전도 만난 10명의 친구들은 23일 주일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목잔치로 외선부하 권리와 주님의 이름으로 대회를 떠났다.

5월 21일에 선교연
구원생 및 단기선
교직원자들을 위한
박수편회를 금요집회
후 9시 30분부터 배
다니 집에서 가졌다.
이 날은 특별히 총회
MTI교수요원으로 수
고하시는 장양백 선
교사님을 강사로 모
시고 선교지의 언어
습득과 훈련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언어재정 훈련을 위해 선교연구원의 외국어 강사(아이리, 가미리, 강라와 집사, 김성자 선생)들이 참여했고 국내외국인선교부에 속한 외국인 형제들이(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참여했다. 하루의 일과 후 늦은 시간에 철야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머리가 허거허거한 신부님 고통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가 참여했다.

강의 중간에 선교학 연구의 필독서로 유명한 '화평의 아이' (peace child)를 비디오로 보았다. 선교지에서는 복음의 비유를 발견하건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느 민족에게나 바로 이 복음의 비유를 주었다. 이 복음의 비유를 발견하려면 바로 선교현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 습득과 훈련의 LAMP 방법은 복음기를 사용하여 현지인으로부터 4문장정도 언어를 채집하고, 그것을 반복



연습한 후 밖으로 나가
매일 50명 이상에게 활
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하
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
법으로 점축을 하게 된
현직인들이 결국은 선교
지에서 동역자로 교회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언
어훈련이 결코 남의 일
아니라 바로 사역 자체
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
교지를 1주일을 가든지,
6개월을 가든지, 3년을
가든지 그 기간 동안 선교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언어를 훈련하지만, 그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녹음기와 공테이프를 준비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장양백 선교사님의 열정으로 12시가 훨씬 넘었지만 파키스탄 형제와 선교연구원생이 직접 녹음을 가지고 실제 연습까지 함으로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에 기회회를 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숙소인 사랑부실과 유아부실도 각기 흠어짐으로 1반 수련회를 위해 가우데 잘 마쳤다.

선교연구원의 평신도선교사 훈련과정(LMTC)! 이제 이 과정은 선교를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다. 앞으로 평신도선교사, 단기선교사로 가려는 자나, 여름·겨울 단기선교를 가려는 자는 반드시 이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천국일꾼 양성

내가 섬길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젊은이들

홍 원 석(고등부 교사)

얼마 전 고등부 처과장회의 시간에 놀라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들의 자녀 가운데 고등부의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수가 2000명

을 웃돈다는 내용이었다. 고등부 출석 학생수가 400명 내외이니 1600여명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몸담고 있는 교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오직하여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은 날이 내
기억 속에 없다. 충무로 교회 시절, 교회
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를 시작하면
집을 나서고 그 찬송이 끝나기 전에 예
배실에 앉아 있었다. 나의 머리는 한 번
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해본 적이
없다. 그러던 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
면서 세상의 유희와 즐거움에 빠지고
말았다. 여전히 믿고지고 말았다.

자신했던 건강한 육신은 허리디스크로 힘을 잃어가고, 정신은 쇠약하여지고, 죽음이란 이런 것인가라고 느낄 정도의 고통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 배탈로 고생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던 하나님을 먼 기억 속에서 찾게 되었다. "하



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건
 강을 허락하
 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12년간의 고향
 고 긴 병마와
 의 싸움에 우
 리 하나님은
 불과 1개월간

의 자료를 통해 강요로 응답해 주셨다.

그 후로 율령과 꼭 고등부 교사 10년째를 맡게 해 주었다. 내가 고등부에서 시 지극히 불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과정이 고등부라고 생각되었고, 나 같은 후배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또 하나 나는 미리모만 알고 행함의 훈련(작은 선행의 훈련, 구제의 훈련, 사함의 훈련, 용서의 훈련, 신임주 생활의 훈련, 주일 생활의 훈련, 전도의 훈련, 순회회를 통한 말씀 훈련 등등)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던 나로서는 세상의 작은 유혹들조차 내가 건건이든 너무 큰 혼해였음을 잘 알고 있다 때때로

교회에서의 해외 단기전교팀 파송이나 고등부에서의 낙도 전도대 파송, 노방전도, 수련회 등을 통한 훈련 과정들은 1999년도 고등부 표어에서 나타나듯이 세상에 무를 꿰지 않는 젊은이들을 양성하여 세상에 배출한 것이다.

5월을 보내는 풀무불 지체들에게

김 동 하(목사, 대학부 지도)

나쁜함과 싸우는 폴무블 지체들(다
입을 다시 준비하는 지체들의 모
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와 평강을 전해 봅니다. 4월의 설레임이
있는 듯 싶었는데 벌써 5월도 다 지나가
버렸군요. 공부하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치렸으리라 실외요. 그럴 땐 공부하
지 말고 쉬세요. 이거 무슨 큰일 날 소리
같은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께요.

나무꾼 두 사람이 땀을 흘리며 나무를 잘라내고 산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잘랐고, 다른 사람 열 열마다 조금씩 나무를 베고 하루 종일 나무를 쪼개 줬대요. 다른 사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잘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무를 쪼개기 힘들면 시냇가에 앉아서 쉬었어요. 발을 물에 담고요 술도 한 잔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나무를 베었어요. 일을 마칠 저녁 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땀을 흘리며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만든 사람은 무뎠어요.

던 나무꾼이었대요.

그런데 실은 공부를 하고있게 해주는 방법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의 영혼이 시험이라는 세상의 도전에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그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세요. 그분 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영원 (永遠)한 영혼(靈魂)의 항구로 향하는 우리의 항해길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 는 그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 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세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맡겨진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천양이라도 나쁘니까 불리 보세요. 강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 말고도 예수님의 음성이라도 들릴 거예요. 힘든 학원의 강의실이지만 그분의 다정한 음성과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거랍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박 병 후(청년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1부에 다니는 박병후, 안설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은 만났고 어느덧 결혼한 지 정말 얼마 안된 세월이 부부입니다. 우리들은 각각 만나기 힘든 환경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안설희 자매는 유년부 지회를 맡고 있으며, 뱀열찬양대와 살롬싱어즈 찬양을 하고 있고, 나는 직업 특성상 1년 중 6개월을 지방으로 출장 다니고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교회내에서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맺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1부 조별 성경공부 시간에 자기의 처해진 상황과 일과들 그리고 기도제목 등을 나누던 중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원이 그 말들을 기억하였다가 자신의 친구와 평소애 나누었던 이야기가 비슷했던지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대면하는 그 어색함과 평소에도 말을 잘 못했던 내가, 그들은 이야기가 잘 나오면서 거의 하루종일을 자매와 지매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들은 조금씩 조금씩 다가감을 느끼게 되었고 매일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직업상 한 달에 2주일간은 지방(성)으로 출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만남의 시간이란 한 달에 일주일밖에 안되고 유일한 만남은 편지와 전화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말씀 읽기와 서로를 향한 기도를 하면서 다음의 만남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된 것은 만난 지 얼마 안되었을 때 그 자매가 복자관에서 자매들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는 모습들과 사람들의 사랑을 대변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아늑한 마음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되던 그해 여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큰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자매의 집에도 물난리가 나고 이른 아침부터 자매의 도움 요청이 오면서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부모님들과

**“모든 것이 새롭고 덜익은 과일처럼
푸릇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고직생활의 엄정함과 자상함,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함과 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들을 느끼면서 어지러운 주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들임을 나는 느꼈 수 있었고,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인사와 구체적인 결혼 준비, 모든 것들이 한 가지도 막힘 없이 순리대로 이루어지

나갔고 드디어 우리가 만난 지 365일째 되던 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평생동안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신혼여행을 일주일간 다녀오고 우리의 신혼방인 잠실집에서 우리들의 동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30여년 동안 다른 환경과 다른 교육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색함과 잘 맞지 않은 옷처럼 서로의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지만 항상, 서로를 존중해 주며 감사하는 마음이집으로 살라고 하니 다들보다 용서, 질투보다 배려를, 이기심보다 나누는 마음을, 미움보다 사랑을 항상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사랑을 조금 더 깊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출현교회 내 신혼가정부 예배를 드림으로써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성, 그리고 다른 신혼가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 수 있어서 무척이나 기쁘답니다.

지금도 서로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항상 자만하지 않으며 서로를 아껴 주며 보살피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젠가 자매가 어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미리카락이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원의자에 손을 맞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우리도 자분들처럼 나이가 많아져도 다정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내 귓가에 생생히 들려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고 덜익은 과일처럼 푸릇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신혼일기

박 현 영(청년2부)

내 사랑은 진주조개

김 정 민(청년1부)

내 사랑은 진주조개

조개는 물결에 밀려온 모래를
보석처럼 살 속에 묻습니다.
하나를 묻고 또
밀려오는 파도에 하나를 묻고
모래는 살 속에 예쁜
진주를 만들어 냅니다.
조개가 살이 망가지는 고통을 참는 동안

내 친구는 진주조개

친구는 상처들을 많은 영혼 속에
보석처럼 묻습니다.
하나의 상처가 무히면 또
다른 상처가 영혼에 생채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을 꼭 다물고
참는 동안
상처들은 예쁜 사랑의 진주를 만듭니다.

내 사랑은 진주조개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시키는 많은 진주입니다.

부한한 가능성과 목표와 책임을 동반하며 시작되는 결혼, 드디어 나도 남들처럼 환상의 결혼을 하게 되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중 하나들이 정해 주신 작곡을 지난해 7월에 만났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아름다운 가정을 하루라도 속히 이루고자 우리는 만난 지 4개월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결혼예식을 하게 되었다. 연애기간이 유난히도 짧았던 터라 늘 교제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도 지나갔다. 매일 매일 사랑하는 그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부부란

이러리라 해야 한다는 주위의 많은 격려와 가르침에 배우고 깨달으며, 물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늘 정성을 쏟았고, 시련지만 그이랑 예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노력해 왔다.

그렇게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면서 어머니날을 맞게 되었다. 우리 집에는 집안 친지들이 다 오셔서 어머니날을 축하하며 저녁식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다. 기뻐하면서 시어머니를 보며, 순간 시골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혼 전 어머니가 늘 하시던 집안 일이나 음식 만드는 것조차 도와드리지 못했고, 힘드신 때 어찌 한 번 주물러 드리지 못했던 일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어머니날 가슴에 캐이션도 달아드리지 못하고, 선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움에 전화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나를 더 걱정하시며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소리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어머니주일 예배드리며 시간마다 어찌나 회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든지 그제서야 행복에 젖어서 있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졌던 것이다. 딸을 사랑하시며 새벽마다 계단을 뿜으시고 울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아프기라도 할 때면 머리에 손으시고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던 어머니, 그 기도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제는 내가 결혼함으로써 기도제목이 더 늘어나 자신의 사위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가 하시는 기도처럼 나도 이 가정을 위해서 남다른 무릎 꿇고 기도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리라 주님께 결심하여

**어머니가 하시는 것처럼
현숙한 기도의 여인이 되리라 ...**

본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그것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나와 의 더욱더 깊은 영적 관계를 이루고 싶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의 사랑이었다.

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의 삶에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시어, 어떤 한 몸을 이룬 우리 두 사람으로 인해 주님 더 큰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세우신 지상의 작은 천국인 우리 가정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99 교회 주변 집중 전도

쉬임없는 전도의 불길로 이어지길, 아름답고 순수한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겠지만, 충성의 성도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순수하다. 맹종의 계약도 알지못한 순종의 기쁨을 더욱 잘 안다. 곳은 남서 중에도 각 교구에서 오든 7백여 성도들은 정해진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전도특강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간구하였다. 날씨는 점점 더 굳어져 점점시간엔 바람과 함께 굵은 소나기가 내렸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성도들은 정해진 텀별로 모여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전을 벌일 각오를 다졌다. 만나홈에는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는 순종하는 성도들로 가득했다. 아니나 다를까, 전도하러 나갈 즈음에 갑자기 비가 그쳤다. 해까지 비

추웠다. 모두들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두 손 들어 감사하여 전도용 소품들(전도용 휴지, 주보, 어깨띠 등)을 갖추어 적절하게 이웃 영혼들을 향해 나아갔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을 위한 죄악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전제진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가 아닐지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 주변 이웃들의 심령들 속에서 확증되었다.

두려워말고 전하기만 하세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특강을 듣고 있다. 강의를 통해서 김계철 목사(전도위원장) 지도는 전도의 정의와 내용, 전도의 실제적 문제 등을 다루면서, 특히 전도하는 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해결되는 죄의 문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유일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여!



전도를 위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듣는 이들의 심령에 뿌리박혀서 결실하게 하소서. 우리 혼자가 가게 마시고 성령님께서 전도와 역사가 하시옵소서."

자, 모입니다!



자, 모입니다! 지역별로 전도팀을 나누고 있다. 총 51개 지역으로 흩어져 나간 성도들이 교역자들의 지도에 따라 지원교구의 성도들과 상견례를 나누며 텀별로 모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자내면서 도 서로간에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았다. 의미있는 교痛的 시간이었다.

격려하는 식탁의 교제



잘 드시고 힘내세요! 특별히 뉴로 준비한 점심식사를 먹으면서 텀별로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서로 격려하고 있다.

복음 듣고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텀별로 전도용 소품들을 지급받고 기도한 후 교회를 나서며 이웃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머니를 위해서 죄짐을 대신 지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목이 아프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파미팅!

"기다렸던 기회였습니다!" "전도하고 나니까 힘이 나네요"

염경자 집사 -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결심케 하신 사람들이 34명입니다. 다 연락처를 적어 주었구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꼭 방문케 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에 대한 열정과 열매를 많이 주셨었는데, 오늘도 전도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주로 어려운 집들, 병자들, 노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능한대로 축복기도를 해 드리지요. 그러면 아주 좋아하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전옥순 집사 -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외에 또 내 신앙이 쑥쑥 자라고 큰 힘을 얻게 하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은 영혼들을 꼭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옥기 권사 - "전도하다 보니가 심령이 광택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나 순순히 잘 받아들이는 젊은이 몇 명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오늘 전도는 정말 기다렸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미리 충분히 알려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혜경 집사 - "전도에 대해서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상 전도하다 나가보니가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근히 두려웠던 불교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자녀들을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 염경자 집사, 전옥순 집사, 이옥기 권사, 서혜경 집사

* 행사를 마지머서

박익식 장로(전도위원장) - 사실, 어깨뺑에 잠도 잘못 걸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플레카드도 없이 시각한 이 행사가 이렇게 놀랍게 진행되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전도, 온 교회가 하나된 연대감 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나는 전도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인원 이상으로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교회 주변 집중 전도가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된 것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교구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되는 가장 좋은 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바로 될 때에 세계전



△ 박인건 장로, 박익식 장로, 이하영 장로

교 또한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영 장로(남녀전도부장) - 오전 중에 비록 비가 내렸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가 그치고 보니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신과 사랑감을 가득 품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관개없이 앞으로 가운데 한 번 정도 더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는 중입니다.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각 교구별 대신자 갖기 운동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운동이 강단에서부터 교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강조되어 온 교회적인 아름다운 불길로 확장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박인건 장로(전도위원회 서기) -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모임을 보고 제 마음도 참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몹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전도운동이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발전해 가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지체토 소식

초등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
합쓰고 있어요

초등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예배 시간에 시작하고 또 친구들과도 장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예배도 할 때 많은 방법을 학년별로 또는 순서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일찍 오는 친구들은 3학년은 예배실 오른쪽에, 4학년은 예배실 왼쪽에 차례대로 앉아서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친구들도 아주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전도사님 말씀에 귀기울이며 태도도 아주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름답고 예쁘게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에 감사하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께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6월 20일에는 어린이 친구 초청 전도 잔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초등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각반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각 반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그 친구들이 다시 교회에 나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한 반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도록 지난 주일에는 태신자 카드와 전도하라는 친구들의 이름을 기도봉과 함께 적어서 각 친구들의 공부방 책상 앞에 붙여 놓고 매일 기도하며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학부모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미숙 통신원)

사랑부
소년부 학생들과 교관수업 실시

사랑부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 지난 주일에 소년부 학생들이 교관수업겸 방문한 것이다. 교관수업팀은 15명 정도의 인원이었는데 이번 주일에도 다른 소년부 학생들이 사랑부에 온다. 소년부 면회회장이 교관수업팀을 대표해서 사랑부에 와서 느슨 공간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정교조가 꺼렸었는데 와서 직접 보고 사귀어 보니 좋다고 하였다. 사랑부 학생들과 소년부 학생들이 서로 친해지면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 주며 적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로 나오오는 어린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조금은 풀게 되었다. 그들에 대한 해답은 아마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순수함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랑부에서는 교관수업을 예전부터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었다. 교관수업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보자는 뜻이었다. 이런 좋은 교관수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혜자 통신원)

영어교육부
교사, 직분자, 찬양팀 교육 실시

영어교육부에서는 23일(지난 주일) 오후 7시 칼빈홀에서 제2회 교사, 직분자, 찬양팀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를 하였다. '가르침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교사들의 역할과 실질적으로 교안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법 등을 배우고 적용해 보았다. 우선 교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교사는 가르치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았다. 그 이유는 교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가르치는 것은 생명의 은사이며, 교사는 배우는 자의 필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주님을 개입시키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전달할 때,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과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초점이 잘 맞고, 단순해야 배우기 쉽다. 이를 염두에 두고, 교안(Lesson Plan)을 작성하고, 효과적으로 동기를 유발하며, 적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질문을 교안에서 보고, 주어진 성경 본문으로 그들을 나누어 교안을 작성하게 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교사로서 새로운 다짐과 주님 안에서 자신의, 재충전됨을 느꼈다. (한정영 통신원)

4교구
아름다운 가정

아침 아침 전사님은 일주일에 한번 집에 오는 아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다. 성경의 스테판 집사님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옛날 모세가 세계 최고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40세에 자신의 의에 따라 한 사람을 죽이고 집이 나서 왕자의 자위도 다 버리고 왕자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의 우리도 최고의 교육, 목숨을 내 애국심, 자신의 의도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말한 수밖에 없음을 아들에게 생경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부모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매일 안부 전화로 말씀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을 이루시길 기원해 본다. (백종영 통신원)

9교구
교구 활성화 위한 행사 가지

우리 교구는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중계, 하계), 남양주군, 양평까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열심만큼은 어느 교구보다 더 뜨겁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 지역인 9지역의 성도들은 교구모임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구에 큰 힘이 되었는데 지난 주에는 매주일 지역별로 찬송가 부르기 9지역부터 시작하면서 또 한번 잘 되고 협력하는 지역임을 보여 주었다.

요즘은 교구 활성화와 교구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지는데 먼저 지역별 찬송가 부르기와 갖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날 교구모임에 환영하고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또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그 달에 생일 맞은 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같은 교구라도 지역이나 구역이 다르므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교구 성도들이 서로 더 잘 알고 관심과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며 교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에게 속한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린다. (정옥련 통신원)

12교구
예수 사랑 실천하는 모범 가정 선정

지난 주일 모범 가정지정식식을 가졌다.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인 김종민 성도 김경혜 권할 가족이다. 어머니 이은의 전사님(81세)은 할아버지로서 양아버지 다리로 사후까지 못하는 병약한 중에 계신데 유망한 직장을 포기하고 손아귀 되어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습과 이웃과 구교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서 이 아름다운 가정에 기도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 시상을 했다. 김경혜 권할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사비를 기도와 신앙으로 양육하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이라 송구스럽다며 겸손해 했다. 예수님 사랑이 식어지는 때 섬김의 본을 보인 가정을 통해 작은 일에도 험기워했던 우리 자녀들 돌아보며 부끄로움과 인정을 받으며 우리 모두 가장 가까운 섬김의 대상인 가족들

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이규국 통신원)

14교구
모두 하되 하나인 하나님께 찬양

지난 5월 21일 금요일집회시 찬양을 부른 우리 교구 성도들은 대부분 악보를 읽을 줄은 모르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파트편성을 하며 외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했다. 나이가 많은 신자들도 가운을 입고는 모두들 찬사 같다고 하며 이런 귀한 찬양을 드리는 일에 모두 감사했다. 특별히 모친상을 당하고 당일 장례를 마치고 함께 하신 아름다운 가정도 있었다. 유년부 어린이들의 바이올린 연주, 남성4중창, 전체합창 모두들 연두해보다 훨씬 아름답게 찬양을 드렸다. 아마도 많은 기도와 정성 때문이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애나 통신원)

■ ■ ■

너희와 우리

교회 마당에 서서 교회당의 침묵을 바라본다. 높은 하늘로 아득하게 솟은 침묵에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봉헌하기 위한 무수한 기도와 눈물이 실려 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날 때 이 일을 이루어낸 믿음의 용사들을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이렇듯 앞선 사람 뒤선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현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너그럽게 끌어안고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와 '우리'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세상에 함께 있는 무리를 분리할 때 필요한 말일 뿐 아니라 한 가족이 된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이이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교회당을 옮긴 시점을 기준으로 온연 중에 '너희'와 '우리'를 분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슬픈 일이다.

오늘도 언덕 위에 놓이 솟은 교회당의 침묵을 보고 기쁜 숨을 불어넣어 찾아오는 '너희'가 있다. '우리'가 걷으로는 활짝 웃으며 다가가지만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있다면 '너희'는 영원히 이방인이다. 일찍 와서 한숨 돌린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있다면 '너희'는 영원히 이방인이다. 일찍 와서 한숨 돌린 '우리'가 늦게 온 '너희'를 향해 친절로 가슴을 열자. 드러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연희 기자)

온연 중에

김 병 태(목사, 7교구 지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려 하면 그만. 내가 가르쳐 주면 된다고. 내가 가르쳐 주면 된다고. 내가 가르쳐 주면 된다고. 내가 가르쳐 주면 된다고.

2년 전 당시 5살된 둘째 형이가 밖으로 나가는데, 엄마가 "형이야, 어디 가니?"라고 묻자, 형이는 "나 심방 가기로 말하면서 유유히 밖으로 나갔다. 며칠

전 저녁을 먹고 난 후, 큰딸 해린이가 "아빠, 나 누가 제일 좋은지 알아?" 라고 질문하더니, 대답하기도 전에 질문을 정정했다. "아침! 아빠, 예수님 배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집에서 형규에게 심방에 대해서 가르친 적도 없고, 해린에게 예수님을 제일 좋아해야 한다고 강요한 적도 없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심방과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주고고 애낸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별한 방법을 찾으려고 세미나를 찾아다닌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이미 온연 중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자녀 교육에 임하려면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되는 것이다. 내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이 아닐까.

